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자기 자신을 밝히 보고, 형제도 밝히 본다

본 문 마태복음 7장 1-5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기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알고 투시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밝히 알고 다스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뜨는 만큼 상대의 마음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다스릴 수 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의 눈의 들보를 빼내라. 곧 너희 모순과 죄를 알고 빼내고 없애라. 그래야 너 자신을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 곧 형제의 모순과 죄와 생각과 마음을 밝히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끝>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상대도 그 차원 급으로밖에 못 봅니다. 소경이 자기를 못 보고 상대도 못 보듯 그러합니다. 만일 소경이 눈을 떠서 자기 자신을 보면, ‘아! 사람들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밝히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남의 것과, 상천하지의 모든 것과,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구시대인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모르니, 자기 자신도 못 보고,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재림하셔서 역사의 눈을 뜬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행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니, 잘 듣고 행하여 최고봉 휴거에 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잠깐 이야기해 주고, 이어서 이 시대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때 구시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새 시대 사람들을 비판하니, 예수님이 이를 보고 “너희 자신을 보고 깨닫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시대인들을 보고 “너희 마음속의 들보만 한 모순을 깨달아라. 먼저 네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형제의 것도 제대로 생각하고 밝히 봐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제 이 시대 말씀의 핵심을 설명해 주며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의 이치는 같습니다. 쉬운 말로 만물도 예쁘게 만들면 예뻐지고, 사람도 예쁘게 만들면 예뻐집니다. 만물도 안 만들면 생긴 그대로 그냥 있고, 사람도 안 만들면 생긴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이를 절대적으로 알고 행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만들면 그대로 있습니다. 월명동 잡초 밭과 가시나무 골짜기를 모두 개발해서 만들듯이, ‘자기 마음’도 만들어야 됩니다. <끝>

사람 마음의 잡초와 가시나무 같은 ‘모순’은 세 가지 원인으로 생깁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첫째,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이어받은 타고난 근성과 성질과 성품이 있습니다. 둘째, 자기가 살면서 사람들로 부터 상처를 받아서 생긴 성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위로 생긴 성질과 성격이 있습니다. <끝>

이 마음의 들보들을 성자가 전하시는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썩~ 빼내고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 소경이 되어서 아쉬운 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휴거’가 안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중요

<휴거의 비밀> 중의 하나가 ‘자기 마음 만들기!’ 다. 자기 마음에서
들보 같은 모순과 티와 죄를 빼내야 <휴거의 최고 비밀>인 ‘성자 사랑’
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끝>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근성과 성격과 모순이든지, 살면서 형제들
과 부딪히며 생긴 성격과 모순이든지, 자신의 생각과 행위 때문에 생긴
성격과 모순이든지 모두 빼내고 없애야 됩니다.

암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아 암이 생겼든지, 살면서 음식
때문에 영향을 받아 암이 생겼든지, 자기 체질 때문에 암이 생겼든지 암
을 수술하여 암세포를 떼 내듯이, 자기의 들보도 떼 내야 ‘영’ 이 살게
됩니다.

월명동도 그러했습니다. 월명동 자체적으로 타고난 골짜기 근성으로
잡초 밭, 가시밭이거나 엉겅퀴가 나 있기도 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웃
동산에서 잡초와 가시나무 씨가 날아들어서 잡초와 각종 가시나무가 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잡초 밭과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을 없애고 자연성전으로 개발했기에 변화되어 ‘이상세계 지역’ 으로 휴거된 것입니다. 개발하지 않았으면, 월명동은 자연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월명동을 쓰기는 씨도 10%밖에 가치 있게 못 씁니다. 100% 가까이 만 들어 가니, 섭리인들 모두가 100% 가치 있게 씁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의 들보를 싹 빼내고 고쳐야 자기 이상 동산을 만
들고, 성자를 맞고, 1차 100선의 휴거를 넘고, 2차 200선의 휴거를 넘
고, 3차 300선의 휴거까지 넘어가 천국의 신부 성인 성약성 차원으로 휴
거됩니다.

자기 마음의 티와 들보들을 100% 빼내야 자기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100% 기능을 발휘하여 성자도 분체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제대로 행하게 됩니다. 고로 완성급 휴거를 이루게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자동차의 기어는 저단과 고단이 있습니다. 저단일 때는 100%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시속 100km의 속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어를 고단으로 놓고 달려야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시속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그러합니다. ‘기어’를 마음·정신·생각으로 비유했습니다.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티와 들보들을 없애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해야 자기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제 기능을 발휘하여 결국 휴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

모두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근성과 성격이든지,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생긴 근성과 성격이든지, 살면서 자기 생각과 행위 때문에 생긴 근성과 성격이든지, 모두 눈의 티와 들보같이 보고 다 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도 밝히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도 밝히 보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휴거의 최고 차원에 오르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볼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을 모순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벗어나서 살고, 성령도 받고, 전도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기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그리도 어렵습니다.

성자는 선생의 그 면을 보시고, ‘성자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셨고

‘분체’로 삼으셨습니다. 성자의 분체가 되었어도 선생은 늘 교만하지 않고, 항상 아기같이 좋아하며 성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행하면, 선생이 행하는 것을 성자가 행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섭리인들이 선생을 보고 성자가 그와 같다고 봅니다.

섭리사 여러분들은 모두 성자 주님과 선생의 개성의 지체들입니다. 고로 절대 마음의 모순과 자기 성격을 고치고 선생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고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선생의 마음도 그러한 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만큼 쓰여집니다. 자기 마음의 모든 들보들을 빼내고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온전히 안 고치고 생명을 만들면, 그 생명도 그 면에서는 자기같이 됩니다. 자기 마음을 고치고 온전히 만들어야 하늘의 좋은 인재들도 자기 몸과 마음같이 재능대로 온전히 만듭니다.

고로 성자도 분체도 좋아서 “이제 본인 책임분담을 해서 천국 작품이 만들어졌다!” 하고 기뻐하며 최고로 귀하게 씁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보가 있기에 잘하는 자를 시기 질투하고, 오해하고, 혼자 있을 때도 말하고, 끼리끼리 모이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보가 박힌 자는 성자까지, 주까지 자기 주관으로 보면서 “이것이 모순이다.” 하며 오해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6>

<성자의 말씀>

사랑의 주체이며 신랑인 나 성자는 ‘신부들의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고, 하늘의 신부로 택한다.

‘마음’ 때문에 섭리사를 따라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중요

육이야 점점 늙어서 변한다. 육은 천국까지 못 가고 세상에서 끝난다.

‘마음’은 혼과 영과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마음을 티 없이 제대로 만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니 몸도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혼도 영도 변화시켜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고 신부로 만들어 온전히 휴거되게 한다.

고로 ‘휴거되는 데 있어서 마음은 생명이다.’ 한 것이다. ‘마음’ 때문에 휴거된다. 신랑은 ‘마음’을 보고 하늘 신부로 택한다. <끝>

구약 때도 신약 때도 ‘마음’, 곧 ‘중심’ 보고 택했다. 이를 모르는 자들은 “육이 멋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왕이면 그 사람을 쓰지,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택해서 쓰지?” 했다. 가장 먼저 ‘마음, 중심’ 보고 택하고, ‘육’은 그다음이었다.

조은이를 택할 때 ‘육’ 보고 택했겠느냐. ‘마음’ 보고 택했다. 육 보고 택했으면 못 택했다. 너희 선생이 조은이를 처음 봤을 때 내게 “말라깽이 젓가락이네요.” 라고 말했다. 열심히 해서 몸이 갖춰진 것이다. 처음에는 키도 172cm였다. 나중에 5cm가 더 큰 것이다.

모두 자기 육을 보고서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보고서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라!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자는 고치면 된다. 지금 너희 모두 키가 작든지, 몸이 작든지 섭리사에서 쓰이고 있지 않느냐.

내 분체를 보아라. 처음에 어땠느냐. 옛날 사진을 보아라. <영상8>

사무엘 선지자 때도 육이 멋진 자 ‘사울’을 택했을 때는 사울의 온전치 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깨졌다.

섭리사에도 “선생님은 이왕이면 육이 멋지고 잘생긴 저 사람을 쓰지, 왜 저런 사람을 쓰시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마음이 핵’ 이니, ‘마음’ 보고 택한다.

너희는 모두 시대에 따라서 육은 잘생겼다. ‘마음’ 만 고쳐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중요

어떤 사람이 산을 사려는데, 산이 멋진 것을 안 보고 무조건 샘이 팡팡 솟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산만 보고 샀다. 물이 없으면 산을 사도 거기서는 못 사니, 샘과 골짜기의 물을 보고 산을 산 것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왕이면 저기 멋진 산을 사지, 왜 저런 산을 사지?” 한다.

나 성자도, 내 육도 마음 안 맞으면 못 사니, ‘마음’ 보고 택한다.
육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원하기보다, 마음에 ‘착한 샘’ 이 솟고, ‘사랑의 냇물’ 이 쉬지 않고 흐르는 자를 원한다. 마음의 들보와 모순을 빼내야 마음에 ‘착한 샘’ 이 솟고, ‘사랑의 냇물’ 이 흐른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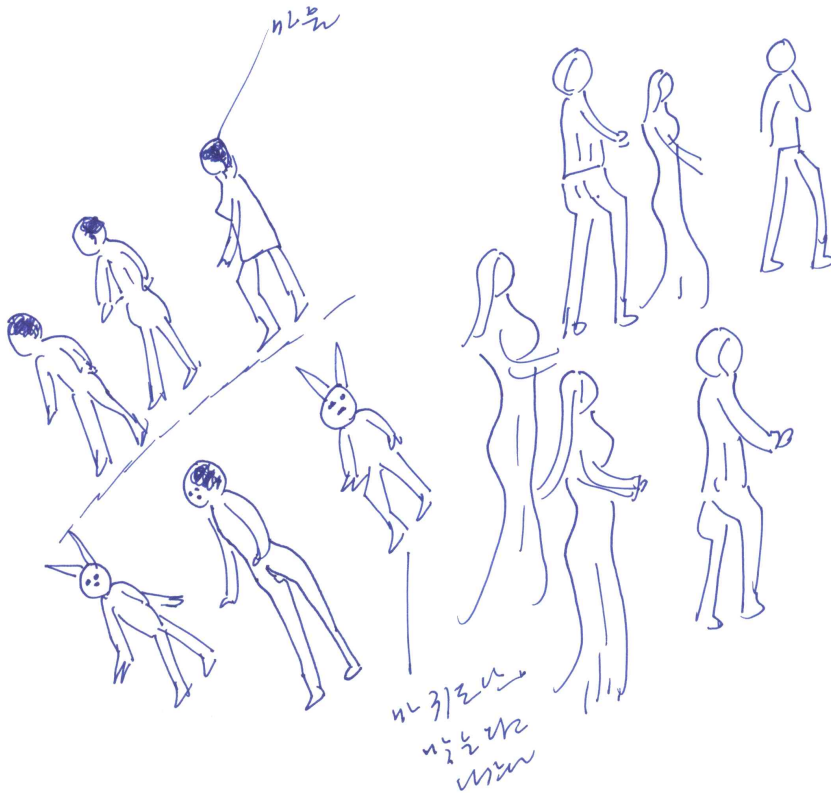
이 귀한 휴거 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신부들 마음의 들보를 빼내는 일’이다. 나 성자는 너희 마음의 성격, 혈기, 분노를 빼내기 원한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고도 ‘마음’과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고 떠난다. 이를 모르는 자들은 “왜 저런 예쁜 여자와 같이 안 살고 헤어졌지? 이해가 안 가네.” 한다. 마음이 안 만들어졌으니,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같이 못 사는 것이다. 그 무서운 마음 때문이다.

이를 명심하고 ‘마음의 들보를 빼내기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0>

자기 마음, 성격, 혈기, 근성을 못 고치고 산 자들은 섭리사에 왔다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마음이 안 맞아서 세상으로 나갔다. 자기 마음을 온전히 고쳐야 ‘맞는 천국’이다. <끝>



마음의 티와 들보를 안 빼낸 자는 가치가 없다. 마음에 보화가 묻혀 있다. 그 보화가 핵이다. 마음이 좋은 자란,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다. 그 마음에 '성자 사랑' 이 폭발돼야 한다. (아멘.) 그러면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진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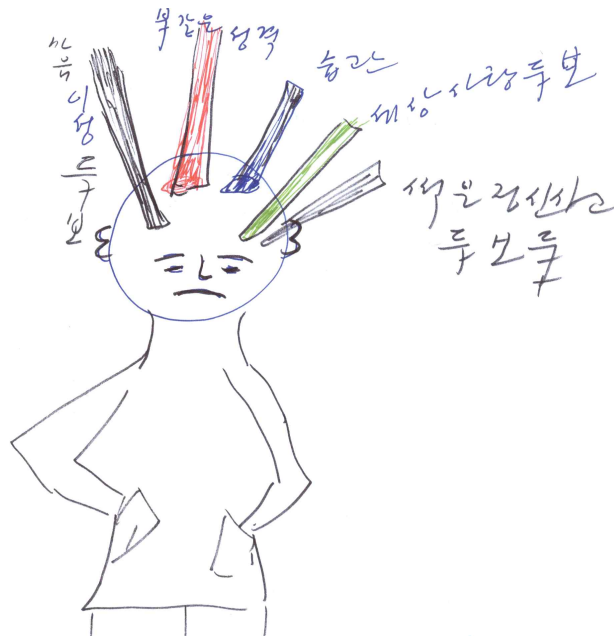
마음의 들보는 나 성자와 분체가 말해 주면, 자기가 알고 빼내야 된다. 그러면 나 성자가 내 분체와 함께 최고로 기뻐한다. 말해 줘도 결국 자기가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못 해 준다. 먼저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그 마음에서 나 성자를 100% 사랑하게 된다. (아멘.)

사탄은 '마음' 을 보고 역사한다. 자기 할 일을 못 한 만큼 자기와 겨루는 자가 생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 일을 하면 겨룰 것이 없다. 다만 공적을 쌓기 위해 겨루면 된다.

너희가 갖춰야 할 다른 것은 다 갖췄으니, 이제 마음의 들보를 빼고
갖추면, 마지막 하늘 천국으로 날아가는 차원으로 휴거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1>

어떤 사람은 마음의 들보가 ‘성격’ 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의 사랑’ 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 이 되기도 하
고, 어떤 사람은 ‘무섭고 불같은 성격’ 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된 것’ 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습
관’ 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썩은 정신과 사고’ 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음의 들보를 완전히 빼내야 된다. 안 빼내면, 다음 단계로 휴거
되지 않는다. <끝>



이성의 들보는 꼭 분체에게 회개하여 나 성자에게 와야 한다. 늦게 회
개하면 휴거만 막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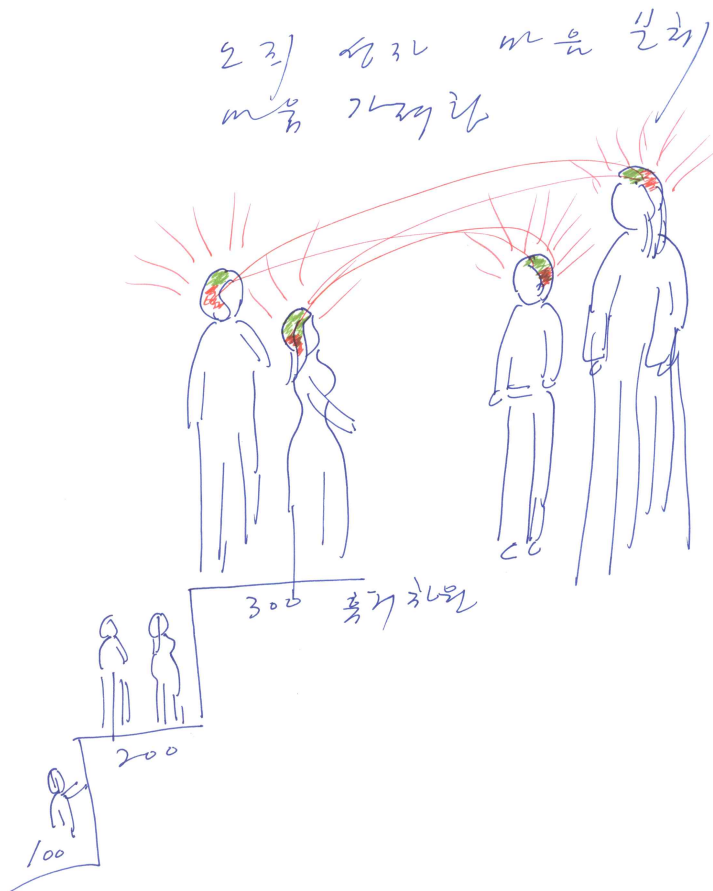
마음에 있는 들보는 호리라도 빼내기다! 그것을 빼내야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여 의의 날개를 치고 휴거 차원에 올라가서 휴거된다. 자기 차
원대로 혼의 세계에 가서 혼으로 보아라.

가정국들은 자기 자녀를 키우다가 그로 인해서 마음의 들보가 생기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타고난 마음의 들보가 있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생긴 마음의 들보가 있기도 하다. 그 마음의 들보들을 빼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단계로 휴거된다.

이 휴거의 때에 섭리사 신부들이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들보를 빼내기’ 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2>

오직 나 성자의 마음과 내 분체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그 마음으로 나 성자와 너희를 구원하는 내 분체와 하나 되어 ‘사랑의 역사’를 이루며 휴거된다. <끝>



휴거되려는 마음은 간절한데,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모두 행하여라. 오늘 말씀을 지키면 100선에 올라서 휴거되고, 100선에 오른 자들은 200선으로 오르고, 200선에 오른 자들은 300선으로 오른다.

들보 속에 이성 사랑, 동성 사랑, 자위행위 등이 다 들어 있다. 아직 이성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많다. 어느 날 심판의 말씀이 나간다. 지금 기회를 줄 때 회개하자.

성지 땅에 데이트하러 다니는 자들이 있다. 발을 금하고, 즉시 회개하여라. 나 성자가 매일 감시한다. 너희가 그로 인해 죽을까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휴거 때이니, 정밀하게 말하니 알고 행하자!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면, 사탄이 조건이 없으니 그 마음에는 못 들어간다.

전도자들과 관리자들이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지 않고 가르치고 관리하면, 전도된 자들과 관리 받는 자들도 정신적인 유전을 받는다.

전도한 다음에 왜 내 분체에게 연결하여 그 마음으로 키워야 하는지 꼭 알고 행해야 된다. 나 성자가 내 육을 통해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전도자나 관리자 자기가 생명을 안고 키우는 자들이 있다. 그것 역시 마음의 들보다. 그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휴거 100선에 오른 자라도 200선은 못 넘는다. 자기 차원 급의 휴거를 못 벗어난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의 이성의 들보, 성격의 들보, 자기를 중심하는 들보 등을 안 빼내면, 도끼와 검과 같은 공의로운 말씀으로 ‘쪼개는 심판’을 한다. 그 날과 그 시는 개인마다 다르다. 모두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행하자!

마음의 들보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고, 또 마음의 들보를 왜 빼내야 하는지 가르쳐 줬으니, 마음의 들보를 빼내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고로 자기가 빼내라는 것이다.

사랑의 성자니라. 샬롬!

* 오늘 말씀은 영 휴거 때에 휴거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며,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전해 준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마음의 들보’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육과 영을 휴거시키시려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성자의 사랑과, 천모이시며 증거의 신이신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섭리세계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각자 마음의 들보들을 완전히 빼내어 자기 자신을 밝히 보고 형제도 밝히 보면서 최고의 휴거를 이루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